

01 '건축사와 함께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에 가다

Visit the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KAFF) 'Together with architects'

글. 윤해성 Yun, Haesung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남두진 Nam, Doojin | 대진대학교 휴먼건축학과

건축 트렌드·자재 정보 공유...건축사 작품 만나는 재미까지 한 곳에

대한건축사협회가 '2018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8)'을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 1층 BI홀에서 개최했다. 100여 개 업체에서 200여 개 부스로 참가한 건축자재 전시와 여러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자재업체를 홍보하고 건축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는 '건축사와 함께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건축사의 작품 전시, 건축사 존(Zone) 등 문화공간도 구성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했다.

건축사 Zone은 건축사들을 위한 공간이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시를 병행하여 건축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건축사 Zone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건축사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건축사존-월간 건축사 전시 및
대한건축사협회 홍보



건축사존



2018 한국건축산업대전 전시관 전경

홍보가 주요 목적인 건축자재업체의 입장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방문객의 대다수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계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여러 번 가봤던 일반적인 건축박람회에 비해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는 전문성이 확연히 느껴졌다. 업체 관계자와 만난 부스 곳곳에서는 건축 전문 용어와 생소한 전문기술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축사와 건축업계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높다”면서 “일반 박람회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차 산업대전을 방문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다. 행사를 참관한 최혜조 씨(경기대학교 4학년)는 “대부분의 교내 건축전시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보는 전시였다면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실제적으로 졸업 후 실무에서 마주하게 될 전문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단순히 부품의 종류를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 되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공간들에 각기 다른 기술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기자 윤해성

‘가깝고도 멀었던 북한건축과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녹색건축’

대한건축사협회서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 1층에서 진행됐다. 산업대전 기간 동안 열린 여러 세미나들 중 ‘건축사, 통일시대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와 ‘녹색건축정책 토론회’를 들었고 다양한 건축자재업체들의 부스전시도 접했다.

17일 전시장 내 교육장에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개최한 ‘건축사, 통일시대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에서 발표를 진행한 이형재 교수(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는 [평양 과학기술대 표준 살림 집 설계 프로세스 발표]에서 남북간 교류가 개선될 즈음 본격적으로 설계착수가 이루어졌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공사진행에 대하여 현장조사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과정, 그리고 공사완료 후 등 당시 사진들의 첨부와 함께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인부와 남한의 관계자가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듯 한 사진이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달라 그동안 적대시해왔던 남북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진 속의 그 모습은 묘한 기분을 들게 해주었다.

두 번째 발표인 [평양의 도시건축 설계 실무]에서는 실제 북한에서 설계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한국에 정착을 한 탈북건축가가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북한의 건축이라는 주제는 충분히 흥미를 끌만했는데 그중 북한에는 개인건축사사무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다. 보통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개인사무소를 준비하여 명성을 쌓아나가지만 북한에서는 도시설계사업소라는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주택, 공공건물 및 사적기념비 등을 설계한다고 했다.



전시장 전경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작 전시



같은 날 코엑스 401호에서는 [신기후 변화에 따른 녹색건축의 미래와 녹지재생]을 주제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개최한 ‘녹색건축정책토론회’도 열렸으며 ▶녹색건축 정책현황과 추진계획 ▶미래의 녹색건축 ▶맞춤형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제언 ▶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마을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 동작구 성대골 자립마을이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을이 성장하며 활동하는지에 대한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태양광과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결합시킨 기술로서 기술팀, 금융팀, 교육·홍보팀으로 나뉘어 마을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한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에너지 재생’이란 주제로 진행한 워크숍 활동, ESS를 통해 절약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 활동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과정을 들을 수 있었으며, 무엇이든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학생기자 남두진

